

미투(Me Too) 운동 전폭 지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전 법무부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가 각계로 전파되고 있다. 이른바 미국 할리우드 발 '미투' 운동의 한국 상륙이다. 서 검사의 폭로 후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도 당했다면서 뒤를 이었고, 이후 각계 여성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는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쌓인 폐단을 청산하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검찰권력에 대한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되는 양상이다.



성추행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지현 검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캡처) 서 검사의 '미투'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어 강자와 약자의 권력구조를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사회개혁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

'미투'운동 정치권 넘어 각계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변호사 취임 시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 변호사를 지목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고, 임은정 검사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 대열에 합류했으며, 경기도의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도 동료 남성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로 이직한 임보영 기자도 경찰청 재직 당시인 2015년 12월 직속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규영(민주당·구로2) 서울시의원은 7년 전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교통공사의 간부가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발령돼 논란을 빚은 일을 언급했다. '미투' 운동은 정치권에서만 번지는 게 아니라 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한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박삼구 회장에 대해 폭로한 데 이

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계열사들도 뜻을 모으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 밖에 여러 직종에서도 미투 운동 참여가 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성을 깔보는 것: 적폐

오랫 동안 남성중심사회로 세상이 흐르다보니 여성을 성적(性的) 대상으로 보는 관행과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또한 명백한 적폐(積弊)다. "지구의 절반은 여성들이 들고 있다"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형태로서 양성평등은 이 시대의 과제이다.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양성평등의 적극적 실현

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원(F1)이 "2018년부터 '그리드 걸'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포뮬러원은 "수십년간 이어진 '그리드걸(레이싱걸)' 고용 관행이 현대 사회 규범과 상충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조치를 밝혔다. BBC는 이에 대해 "포뮬러원이 미투 시대의 맥락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은 지난 달말부터 19세기 영국 대표 화가 존 워터하우스의 그림 '힐라스와 님프들' 전시회를 일시 중단했다. 여성 누드를 그린 명화까지 '미투' 때문에 전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는 문화계

및 스포츠계까지 '미투'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2018.2.5. A18면 참조).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섹스

전 세계적인 '미투' 캠페인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성에 관한 규범 인식이 매우 권력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힘 있는 자가 약자의 성을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려는 작태는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다. 사실 성경은 성적 문란을 범죄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마음으로도 간음한 자는 음란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음란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근본 교리도 음행을 가장 큰 업을 짓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모든 종교가 성적 문란을 범죄로 다루고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남녀간의 음란을 지상천국 건설의 최대 장애로 보고 있다. 음란은 마귀의 최대의 무기이고, 음란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무량대수로 발생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투' 운동은 성적 문란이 판치는 이 세상을 다소 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까지고는 부족하다. 진정한 낙원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음란이 없어질 때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간들이 원래의 모습인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5지역 3개부문 1등 석권



강춘희 5지역 부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 성적은 5지역이 2017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지역 1등을 차지하였다. 탄탄한 4지역이 전 지역원의 고른 지원으로 지역 2등을 차지

하였다. 막강의 3지역이 역시 강세를 이어가며 지역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고선희 권사가 1등, 김인숙 집사가 2등, 이영애 권사가 3등을 차지하였으며, 구역성적으로는 42구역이 1등, 6구역이 2등, 46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5지역은 지역 1등과 구역 1등 그리고 개인 1등까지 짝 쓸이하며 3관왕에 올랐으며 구역 3등까지 쓸어 담는 기쁨을 누렸다. 윤봉수 회장은 "1등을 차지한 5지역을 중심으로 상을 탄 4지역, 3지역 성

도남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신 나머지 지역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올해 들어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의 잘못된 습성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감정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길은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의 길이다. 마귀가 바로 나 자신이다.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 어느 누가 내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을 만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

다."라고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구역 1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2등: 6구역 3등: 46구역(구역장: 박철수)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2등: 김인숙 집사 3등: 이영애 권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7> “하나님의 자격을 얻어야”

죄인은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 누구를 믿으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세상 모든 원리가 자격이 없으면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격을 얻어야 영생을 누리고 영원무궁토록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사정

을 내 사정으로 여기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시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나 편법은 결코 없는 것이다. 천당 가는 길,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전에 구원 얻는 길을 몰랐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단지파 이스라엘(이긴자)에 의해 6천 년 만에 무너진 통곡의 벽; '나' 라는 주체의식, 자존심 마귀, 선악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순방하면서 현지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지인 '통곡의 벽(Wailing Wall)'을 방문했다. 그는 유대교 관습에 따라 전통 모자인 '키파'를 쓰고 구약성경 시편의 한 구절을 읽고, 기도문 쪽지를 바위틈에 꽂았다. 유대인들은 이 벽에 '신이 임한다'고 믿어 바위틈에 기도문 쪽지를 꽂고 머리를 벽에 대며 기도한다.

시도해도 도저히 뚫리지 않는 무언가를 별칭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통곡의 벽: 못 넘는 벽 뜻도 있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주요 외국 인사들은 왜 이 벽을 찾아가 이런 의식을 할까? 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서기 324~638년 로마군은 유대인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했다. '통곡의 벽'은 서기 70년 로마군이 완전히 파괴한 유대교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간 전 세계에서 500만명이 찾는다. 유대교 성지(聖地)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날인 '티사 베아브'에만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들은 이 서쪽 벽에서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서쪽 벽' 또는 간단히 '코텔(벽)'이라고 부른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출입을 제한받았던 유대인들이 벽을 만지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며 유럽인들이 붙인 이름이다. '통곡의 벽'은 "보이는데도 넘지 못하거나 넘기가 너무 힘들다"는 비통함을 강조하는 뉘앙스로 아무리

통곡의 벽 넘는 진리 철장 자유율법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와 학문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분장을 초래하는 공공의 적, 「통곡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 벽의 실체와 제거방법을 아는 국가나 민족이 어디며 그 주인공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모든 비밀이 '이긴자'와 '심판자'로 해석되는 '이스라엘'과 '단'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었다.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창세기 49장 16절에는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슬성신이 함께 하는 이긴자 구세주의 상징이 '이스라엘'이요, '단'은 단지파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지파가 배출한 이긴자 구세주에 의해서 마침내 밝혀진,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인류에게 죽음과 분장의 고통을 안겨온 「통곡의 벽」은 모든 인간이 마음으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사는 '나'라는 주체의식(자존심 마귀, 선악과)이었다. 그는 그 벽을 허물어 불사영생, 평화통일을 이루는 진리의 철장인 「자유율법」을 선포했다. 모든 인류가 이긴자 구세주의 진리로 통곡의 벽을 허물고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안병천 승사/ 승리제단 기획부장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제 종횡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휴식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산산에 접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직관 영혼에 한층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